

# 馬王堆 帛書와 《說文解字》의 ‘脈’ 자형을 통해 본 갑골문 ‘永’의 문화적 내면

김 경 일\*\*

---

## ◁ 목 차 ▷

---

- I. 들어가기
  - II. ‘永’과 ‘脈’의 고문자적 비교 분석
    - 1. 갑골문의 ‘永’
    - 2. 漢代 馬王堆 帛書와 《說文解字》의 ‘脈’
  - III. 맺는 말
- 

## I. 들어가기

이 논문의 저술 목적은 漢代 馬王堆 帛書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 등에 나타난 문자 脈의 자형 이해를 중심으로, 商代 갑골문과 周代 金文을 참고로 하여 商代 갑골문 永에 대한 기존 갑골학계의 이해와 관련해 문자학적, 문화학적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3년 발굴된 馬王堆는 기원전 196년 漢 高祖 11년 무렵의 기록을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곳에서 발굴된 28개 종류의 帛書는 전국 시대 말기의 문화와 문자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帛書에는 그 동안 金文만을 통해 접해왔던 전국 시대의 자형과 다른 자형들이 존재하고 있어 고문자학적인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帛書의 고문자 자형들 중 脈의 자형에 사용된 字素가 다양하며 造字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미 또한 매우 독특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다른 학문 영역에 속하는 한

---

\* 이 논문은 상명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상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의학 관련 학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馬王堆 帛書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 등장한 脈의 자형을 문헌상 검증할 수 있는 最古의 기록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자료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다(한의학계의 논의는 필자와 상관이 없으나 이 논문의 착안점을 얻게 된 연유를 밝히는 차원에서 언급했다).

필자는 문자학적인 측면에서의 호기심을 근거로 漢代 馬王堆 帛書의 脈 관련 자형들을 분석해 가는 과정에서 永이 字素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기에 그 고대 자형을 추적하게 되었고, 戰國, 春秋, 西周 시대를 거슬러 갑골문의 永의 자형을 자세히 분석하게 되었다. 특히 갑골문 永의 경우 本意 파악을 위해,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텍스트를 상세히 검토하게 이르렀다. 그런데 뜻밖에 이 과정에서 갑골문 永에 대한 기존 갑골학계의 考釋에 검토할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 내용을 학문적으로 제기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필자는 중국의 갑골학자들이 갑골문 永의 의미를 문자학적인 엄밀한 考釋보다는 후대의 의미를 근거로, 대가들의 직관적인 풀이가 특별한 논증 없이 후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면서 의미가 고착되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 엄밀한 고증도 미미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그 의구심을 문자학적으로 해소해 가는 전개 과정이다. 논지 전개 과정에서 필자는 馬王堆의 帛書에 보이는 脈에서 字素로 사용되고 있는 永이 商代 갑골문의 永과 문화적으로 하나의 맥락 속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피력하고자 한다. 갑골문에서 사용되던 永이 西周와 春秋 시대를 이어 오면서 戰國 시대에서 脈의 字素로 전용되었으며 후대의 《說文解字》의 脈 자형과도 문자학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다루게 될 것이다.

논문의 내용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먼저 商代 갑골문 속의 永의 자형과 관련 텍스트를 살펴보는 영역이다. 여기서 기존 학계의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永의 本意가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사점을 근거로 漢代 馬王堆의 帛書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 보이는 脈 관련 자형을 검토하는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여기서는 帛書에 보이는 脈의 字素들과 구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또 후대의 문헌인 《說文解字》에 보이는 脈의 자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의 문자학적인 이유도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脈 자형과 異體 자형에 대한 許慎의 풀이를 문자학적

인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도 다루게 될 것이다.

## II. ‘脈’과 ‘永’의 고문자적 비교 분석

### 1. 갑골문의 ‘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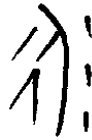


그림 1

商代 갑골문 永의 기본형은 그림-1과 같다. 이 글자를 최초로 考釋한 학자는 羅振玉인데, 《說文解字》의 ‘물이 질서 있고 길게 흐르는 모습을 묘사한 것(象水理烝之長)’의 설명을 바탕으로 派의 初文으로 보았다.<sup>1)</sup> 하지만 그 후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대 글꼴에서 派와 永이 혼용되고 있고 특히 주대 金文에서 永으로 풀어야 의미가 통하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 상황을 근거로 이 글자를 永으로 隸定하고 있다. 그 후 글자의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于省吾는 글자의 왼쪽과 오른 쪽에 보이는 것은 물결이며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모습과 永에 대한 《說文解字》의 「물이 질서 있고 길게 흐르는 모습을 묘사한 것(象水理烝之長)」의 설명을 근거로 이 글자는 游와 통용되는 ‘물속에서 헤엄치다’의 의미 즉 泳의 本意를 갖고 있다고 확정짓고 있다.<sup>2)</sup> 이 후 자형의 특성과 《說文解字》의 해설을 근거로 한 永의 자형 설명이 타당하다는 공감대 때문인지 이에 대한 다른 차원의 考釋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갑골문에 존재하는 수많은 永의 자형은 泳, 즉 ‘물속에서 헤엄치다’의 설

1)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2263쪽.

2) ‘물속에서 헤엄치다’의 표현은 泳으로 제시된 풀이를 필자가 한국어로 다시 풀어놓은 것이다.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2276쪽 참조)

명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더구나 永이 후기 형성자인 泳의 本意를 지녔다는 于省棼의 설명은 해당 텍스트들에 담긴 내용들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이제 분석하겠지만, 商代 초기에 절대적 神威(divine power)를 지니고 있는 帝가 商 왕실에 하사하는 주술적 특권의 대상으로 永을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를 보면, 후대 형성자인 泳의 의미인 ‘물속에서 헤엄치다’의 뜻으로는 도저히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다. ‘물속에서 헤엄치다’의 의미는 후대 《說文解字》의 설명을 근거로 얻어진 것으로 어떻게 보면 《說文解字》의 해설은 갑골문 永의 글꼴을 이해하는 데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할 수 있다. 또 이제 분석할 ‘물속에서 헤엄치다’의 동작과 연결할 수 없는 자형들의 존재 역시 《說文解字》의 해설이나 그것을 근거로 한 于省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물론 문자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문헌이기는 하지만 《說文解字》의 적지 않은 해설이 갑골문의 자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앞서도 언급했듯이 《說文解字》에 앞선 시대의 기록인 馬王堆 帛書에 보이는 脈 자형에 永 字素이 갑골문 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永의 문화적 내면을 자형과 텍스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갑골문의 자형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정확한 분석을 위해 현재 갑골문에 등장하는 永의 모든 자형을 소개하기로 한다. 필자가 관련 텍스트를 살펴본 결과 제시한 그림-1을 포함해 모두 열 종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다시 字素별 특징을 근거로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그림-2에서 그림-5까지 네 개의 자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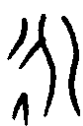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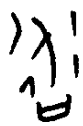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2, 그림-3과 그림-4는 기본적으로 그림-1과 동일하다. 왼쪽의 字素는 갑골문 行(그림-6)의 왼쪽 자형과 동일한데 움직임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사람 人이 들어 있다. 맨 오른쪽 字素의 경우, 그림-1, 그림-2, 그림, 그림-3 모두에서 액체를 나타내는 점이나 액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곡선의 字素들을 배치하고 있다. 갑골문에서 점 등의 字素는 주로 물, 땀, 피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4의 경우, 오른쪽 자소는 마치 行의 오른쪽 字素처럼 보이지만 다소 약화된 모습이며 텍스트를 통해 볼 때 분명 永 자형이다. 때문에 이 字素는 行이 지녔던 움직임의 의미를 강조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에 담긴 핵심 의미는 ‘사람과 관련 있는 액체의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과 관련해 의미를 강조한 것이 그림-5의 글꼴이다. 즉, 주로 발동작을 나타내는 止의 字素가 그림-5 하단에 들어 있는 이유라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그림-3의 하단에는 入口의 字素가 들어 있다. 갑골문에서 入口의 자소는 말, 특정 장소, 그릇 등을 상징하는 데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번에는 그림-7, 그림-8, 그림-9, 그림-10, 그림-11, 그림-12의 자형을 보자.



이들 자형은 앞서 살펴본 자형들이 지닌 기본적 자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이들 자형들에는 모두 손 하나인 又, 또는 두 손인 卩이 들어 있다. 물론 이들 자형 모두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字素가 왼쪽에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 人도 있다. 하지만 人의 字素는 앞서 살핀 자형들에 사용된 人에 비해 뭔가 생략되거나 변형된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갑골문의 일반적인 현상과 다르다. 다른 人의 자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 또 하나 물 또는 액체를 상징하는 字素 역시 앞서의 자형들에 비해 상당히 변형된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강조하기 위한 字素로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결국 전체적으로 앞서 살핀 永의 자형과 이들 자형들이 문자학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일치되는

字素를 지닌 동일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무언가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음도 사실이다. 「중국문자의 기원은 도화」라는 고문자학자 唐蘭의 선언<sup>3)</sup> 이후, 갑골문 등의 고대 문자를 단순 부호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은 학문적 기반을 획득하였고 이를 통해 고대 자형들의 考釋을 단순히 字素 만으로 파악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자형을 보면, ‘사람과 관련 있는 어떤 액체의 유동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려는 자형임을 감지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하게 다른 점은 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손은 한 손, 또는 두 손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림-7, 그림-8의 경우 손이 인체의 하단을 붙잡고 있는 듯하다. 반면에 그림-9는 사람과 왼쪽의 字素를 붙잡고 힘껏 벌리고 있는 듯한 동작이 강조되어 있다. 그림-9, 그림-10은 왼쪽의 자소와 사람의 하단을 붙잡고 벌리는 동작이 강조되면서 사람인의 자형이 거의 하나의 곡선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림-11은 사람이 흐름을 위해 사용되던 필획을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사람 人의 하단을 두 손 또는 한 손으로 붙들고 있거나 하는 모습은 이들 자형의 의미가 《說文解字》의 해설을 근거로 한 ‘물속에서 헤엄치다’의 동작에 제한되기 어렵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갑골문에서 인체와 함께 손이, 특히 두 손이 등장하는 문자로 媿(그림-13)을 들 수 있다. 두 손으로 자궁을 열어 태아를 받는 모습의 이 자형에서 두 손이 사용되고 있는 永 관련 자형에 등장한 손의 字素가 전하려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13

즉, 永에 사용된 손의 字素 역시 무언가 사람의 몸을 붙잡거나, 헤집거나, 살피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永 자형에 등장한 字素들이 전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 있는 액체의 유동성’ 중에서 두 손으로 붙잡거

3) 《古文字學導論》，臺灣，洪氏出版社，1978，108쪽.

나, 해집거나, 살필 수 있는 것을 무엇일까? 갑골문만 보았을 때는 전혀 추측이 불가능하지만, 이 논문의 저술 목적을 밝히면서도 언급했듯이 馬王堆 帛書의 脈 자형의 의미와 거기에 사용된 永 字素의 쓰임새를 고려해 볼 때, 그것은 아마도 혈관 속의 혈류일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갑골문에는 血 또는 皿의 자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피를 상징하기 위해 점이 사용되고도 있어 永 자형에 등장한 字素들이 전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 있는 액체의 유동성’이 피 자체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혈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혈류, 즉 피의 흐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永을 혈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혈류로 볼 수 있는 갑골문 텍스트가 존재하는가?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자.

갑골문에는 200여개 정도의 永 관련 텍스트들이 있다. 이들 텍스트를 모두 살펴본 결과, 永은 아주 가끔이기는 하지만 「在永- 영 지역에서」(英2562正)에서처럼 지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辛亥卜, 永貞: 勿...-신해일에 점을 치면서 정인 영이 묻는다. ...을 하지 말아야 할까?」(英308)의 기록에서 보듯이 점을 직접 치는 貞人, 즉 인물이기도 하다. 이 인물은 또 때로 정벌이나 사냥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 외에는 갑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들 속에서 永은 대부분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meaning boundary)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자들 중에 永을 따로 구별해 그 의미가 어떠한지라는 정의를 내리거나 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앞서 언급했던 永을 泳의 本意로 考釋해 간 학자나 그 학설을 따르는 학자들의 경우도 永의 의미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永이 지닌 ‘영원하다’의 의미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의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와 관련한 갑골문 텍스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商 왕의 신분이나 권력의 안위와 관련해 永을 쓰는 부분이다.

王其田, 惟乙湄日, 無災, 永王, 擒?- 왕이 장차 사냥을 나간다. 반드시 을일에 날이 흐릴 것인데 재난이 없을까? 왕이 안전할까? 포획을 할까? (합28496).

惟壬往曾征無災 永王? 吉.- 반드시 임일에 증 지역으로 공격을 하러 가는데 재난이 없고 왕이 안전할까? 길하다. (屯1098).

惟壬省田無災，王永?- 반드시 임일에 시찰과 사냥을 가는데 재난이 없고 왕이 안전할까? (屯4562).

위의 텍스트들은 왕이 사냥을 다닐 때 왕이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다. 보통 갑골문 텍스트에서 사냥 등을 다닐 때는 ‘재난이 없을까(無災?)’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위에 제시한 텍스트들의 경우 왕을 따로 지칭해 永의 여부를 묻고 있다. 이를 통해 永은 신체상의 안전이 아닌 왕위나 권력의 문제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의 안위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 영역(meaning boundary)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은 특정 지역에서의 안위를 묻는 것으로 파악된다.

...吉，王永于並?- ...길하다. 왕이 並 지역에서 안전할까? (合4387).

갑골문에서 並은 왕이 자주 사냥을 나가는 곳으로 때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특정한 제례를 행하는 지역이기도 하다.<sup>4)</sup> 이렇게 보면 위 텍스트에서의 永은 ‘제례 명칭+于+지명’의 어순에서 보여주듯이 並 지역에서 진행되는 제례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永이 제례 명칭으로 사용되는 예가 다시 없어 並 지역에 머물 때의 안위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永은 또 전쟁 때에 상왕실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들의 안위를 묻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다음의 갑골문이 이에 해당된다.

癸卯卜，黃貞：旬無禍？在正月，王來征人方，在攸，侯喜畷永?- 계묘일에 卜을 하면서 정인 황이 묻는다. 열흘간 화가 없겠지? 정월에 왕이 인방을 공격하러 출동한다. 攸에 있을 때 제후 중족 희의 변방이 안전할까? (合36484).

그런가 하면 永은 질병의 회복과도 관련해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다음 내용을 보자.

...辰卜，王貞：...有疾，...尹...永...?- ...진일에 卜을 하면서 왕이 묻는다. ...가 병이 있다. ...윤...하면 회복할까? (合21381)

4) 合32107에는 ‘병 지역에서 奠의 제례를 지낼까?(奠于並?)’의 내용이 있다.



즉, 이상에서처럼 永은 일반적으로 안전, 회복 등 긍정적 의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영원하다’의 범주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갑골문을 보자.

帝不降永?- 절대신 제가 영원함을 내릴까? (屯723).

己未...不降永?- 기미일에 ... 영원함을 내리지 않을까? (屯3594).

乙卯卜, 不降永?- 을묘일에 점을 친다. (조상 또는 절대신이) 영원함을 내리지 않을까? (합32112).

辛未貞: 不降永?- 신미일에 묻는다. (조상 또는 절대신이) 영원함을 내리지 않을까? (합33263).

惟父庚庸奏, 王永?- 아버지 경을 위해 종을 연주하면 왕(의 자리)가 영원할까? (합27310).

戊寅卜, 古貞: 我永?- 무인일에 卜을 하면서 정인 고가 묻는다. 우리 상 왕실이 영원할까? (합248正).

王占曰, 吉永.- 왕이 점괘를 보며 말한다. 길하고 영원할 것이다. (합3753反).

이상의 텍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永의 의미는 분명 ‘영원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永은 절대신 帝가 내리는 특정한 상황임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商代에 帝는 특정한 제사 禘를 통해 원시 사회 속에서 성스러운 존재로 구축되어 있으며, 초월적 神格과 구체적 神威(divine power)를 구사하고 있다. 즉, 商 왕실에 길흉화복을 하사하는 施事主語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5)</sup> 이런 어법적,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되는 永이기에 永의 의미를 우주론적인 측면에서의 ‘영원함(Eternity)’으로 이해하는 것이 商代 문화의 이해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다. 또 「惟父庚庸奏, 王永?- 아버지 경을 위해 종을 연주하면

5) 김경일, 〈商代 갑골문 텍스트에 보이는 ‘丁’의 문화적 숨意〉, 《중국어문학지》 33집, 2010.8, 302-303쪽.

왕(의 자리)가 영원할까? (습27310)」의 경우에서처럼, 永은 조상신과도 연결되면서 자형이 내포한 특정한 이미지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면서 聖別된 영역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조성은 商代 갑골문에서는 주로 제례를 통해 통치 권위의 내면을 강화하는 이른바 내재적 전체성의 원리(inhabiting principle of the whole)<sup>6)</sup>에 들어맞아 永의 의미를 다른 차원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商 왕실의 조상들이 원시 사회 속에서 祭儀적 과정을 통해 성스러운 존재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sup>7)</sup>의 재현으로 단지 永의 경우는 문자의 祭儀적 사용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이미지가 그림-1의 永 갑골문 글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림-7 이하 손의 字素가 사용된 자형들은 분명 永의 갑골문 자형이 후대의 泳 자형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永과 泳의 연결은 문자학 발전 단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初文과 후기 형성자의 관계를 단순하게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永의 갑골문 자형에 감추어져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漢代 馬王堆 帛書와 《說文解字》에 보이는 脈 자형 속의 字素들, 그리고 周代 金文 자형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 漢代 馬王堆 帛書와 《說文解字》의 ‘脈’

漢代 馬王堆 帛書에는 두 가지 형태의 脈 자형이 존재한다. 하나는 그림-14, 그림-15에 보이는 글꼴들로 ‘陰陽十一脈灸經’에서 사용하고 있다.<sup>8)</sup> 또 다른 자형은 ‘足臂十一脈灸經’에 보이는 그림-16과 그림-17이 이에 해당된다.<sup>9)</sup> 이들 자형들은 현대 楷書의 자형과 다르지만 馬王堆 帛書에서는 모두 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 관련 상황들을 살펴보자.

6)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동양신화-신의 가면II》, 서울, 까치글방, 1999, 12쪽.

7)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옮김, 《이미지와 상징-주술적, 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서울, 까치글방, 1998, 46쪽.

8) 陳松長 編著, 《馬王堆簡帛文字編》, 北京, 文物出版社, 2001, 134쪽.

9) 陳松長 編著, 《馬王堆簡帛文字編》, 北京, 文物出版社, 2001, 457쪽.



그림 14 脉  
‘陰陽十一脈灸經’  
經 甲046



그림 15 脉  
‘陰陽十一脈灸經’  
甲051



그림 16 濕  
‘足臂十一脈灸經’  
012



그림 17 濕  
‘足臂十一脈灸經’  
021

먼저 ‘陰陽十一脈灸經’에 사용되는 글꼴을 보자. 字素가 目과 永으로 구성된 자형을 학자들은 脉으로 隸定하고 있다. 그 이유는 馬王堆 帛書의 쓰기 습관에서 月10)의 자형이 눈 目처럼 필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는 바와 같이 그림-18는 시간을 나타내는 月(월)의 자형과 유사하고 그림-19는 아래가 막혀 있어 目(목)의 글꼴과 유사하다. 하지만 그림-18, 그림-19는 모두 고기 肉의 부수 형태인 月이다. 하지만 자형은 필사 습관 때문에 目처럼 보인다.



그림 18  
肉(月)



그림 19  
肉(月)

이번에는 馬王堆 帛書에서 달 月(월)로 사용되는 그림-20, 그림-21의 자형을 보자. 마치 눈 目과 같은 모습이다. 특히 그림-22의 경우 완전한 눈 目的 모습이 며, 그림-23에 보이는 期의 오른쪽 字素는 완전한 目的 형태이다.



그림 20  
月



그림 21  
月



그림 22  
月



그림 23  
期

10) 이 글자는 달 月로 읽힐 수도 있고, 고기 肉, 즉 月으로 읽힐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馬王堆 帛書의 필사 습관에서 肉(月), 月, 目的 字素가 서로 자유롭게 호환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유사한 글꼴의 호환은 중국 문자 발전사에서 매우 일상적인 현상이다. 갑골문이나 金文, 또는 敦煌 卷子 속의 이른바 俗文字에서의 字素 호환<sup>11)</sup>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에 馬王堆 帛書의 이러한 현상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는 오른쪽 字素 永을 살펴보자. 앞의 「1. 갑골문의 ‘永’부분에서 자세히 살폈던 永의 자형은 周代에 들어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周代 金文 중, 永의 사용이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에 인용하는 西周 초기의 청동기 ‘命簋’이며 관련 자형은 그림-24이다.



그림 24  
‘命簋’에  
보이는  
永

이 텍스트에서는 永이 ‘영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내용을 소개한다.

惟十又一月初吉甲申，王在華。王賜命鹿，用作寶彝。命其永以多友簋飲。 십일 월 초길, 갑신일에 왕이 화에 머물렀다. 왕이 명에게 사슴을 하사하니 이를 기려 소중한 청동 제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장차 영원히 이 청동 제기로 많은 혈친을 위해 (술을 마시게 하는) 그릇으로 삼도록 명했다. (‘命簋’ 類檢52).

周代 초기의 永의 자형인 그림-24는 갑골문의 글꼴이 지니고 있는 字素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圖畫적 요소는 생략된 모습이다. 이는 부호적인 성격이 강해 지면서 圖畫적 요소가 사라지는 西周 金文의 일반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자형은 얼핏 보기에 그림-14, 그림-15에 보이는 馬王堆 帛書의 脉에 존재하는 永 字素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漢代 馬王堆 帛書에 보이는 永 자형이 西周 시대

11) 潘重規, 《敦煌俗字譜》, 臺灣, 石門, 연대 미상.

의 자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西周 이후 周代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永의 자형에는 商代 갑골문에서 볼 수 있지만, 西周 시대 金文에는 보이지 않던 字素들이 여전히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림-25, 그림-26, 그림-27에서 보듯이 西周 이후의 자형에서 商代 갑골문에서 볼 수 있었던 字素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림-28처럼 도화성이 강한 특이한 글꼴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戰國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림-29의 자형처럼 필획이 간소화되며 부호화된 자형으로 수렴하고 있다. 즉, 永의 기본 字素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行의 왼쪽 부분, 사람 人, 그리고 액체를 상징하는 점 등 세 가지 요소는 사라지지 않고 부호화된 상태로 馬王堆 帛書의 자형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그림-16과 그림-17의 자형에 대해 살펴본다. 글자의 외형만을 근거로 字素를 살펴보면 彳, 目, 皿으로 되어 있어 이 글자가 脈으로 사용된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학자의 풀이를 번역해 놓은 《중국 고대 의학의 재발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하나 소개되어 있다.

“足臂十一脈灸經에서는 脈을 모두 ‘溫’으로 썼는데, 이것은 脈의 이체자이다. ‘溫’의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은 ‘目’인데, 바깥쪽의 ‘口’는 혈관벽을 나타내고, 안쪽의 ‘二’는 혈관 내의 氣와 血을 나타낸다. ‘溫’자는 혈관을 질개해 기혈이 그릇으로 흘러가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 옛 상형자는 당시 의학자가 경맥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당시에 맥은 혈맥을 뜻했으며 경맥과 같은 말이었음이 분명하다.”<sup>12)</sup>

그림-16과 그림-17의 자형들을 溫으로 隸定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 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脈 관련 자형의 변화 과정, 특히 漢代 馬王堆 帛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쓰기 습관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目인데, 바깥쪽의 口는 혈관 벽을 나타내고, 안쪽의 二는 혈관 내의 氣와 血을 나타낸다.」는 풀이는 문자학적인 맥락에서 벗어난, 특정 학문의 선입관이 문자 考釋에 비합리적으로 삼투된 경우라고 하겠다. 사실 目으로 보고 있는 字素는 앞서 그림-18, 그림-19에서 살펴보았듯이 月, 즉 肉으로 보는 것이 漢代 馬王堆 帛書 쓰기 습관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月, 즉 肉은 脈으로 隸定한 자형이 담고 있는 인체의 의미를 반영하는 字素로 보아야 한다. 彡의 字素 역시 脈으로 隸定한 자형에 담긴 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皿 字素의 등장이다. 《중국 고대 의학의 재발견》에서는 「혈관을 절개해 기혈이 그릇으로 흘러가는 모양」이라는 해설을 하고 있으나 문자학적 측면의 고려가 부족한 표현이다. 또 漢代 馬王堆 帛書의 쓰기 습관과 중국문자 자형의 문자학적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라 하겠다. 漢代 馬王堆 帛書에서는 血을 그림-29처럼 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血의 자형은 또 皿의 자형과 호환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림-31은 益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형으로 글꼴을 있는 그대로 隸定할 경우 血의 자형이 된다. 하지만 텍스트에서는 모두 益, 즉 水와 皿 자소의 결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漢代 馬王堆 帛書에서 血과 皿을 크게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문자학적 관점에서 낯설지 않다. 더구나 그림-16,

12) 주일모 저, 김남일 역, 서울, 범인문화사, 2000, 41쪽.

그림-17의 자형을 보면 月(즉, 《중국 고대 의학의 재발견》에서 目으로 隸定하고 있는)의 맨 아래 획과 皿 바로 윗부분이 밀착되어 있다. 이러한 쓰기 습관은 갑골문이나 金文에서 획과 획이 공통된 공간을 점유할 때 하나의 필획을 생략하면서 자형을 구성하는 이른바 合文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皿으로 예정한 글꼴의 윗부분을 目이 아닌 고기 月, 즉 肉으로 보는 것이 문자학적 맥락에서 더 합리적이다.

잠시 종합을 해보면, 그림-16, 그림-17의 자형에 존재하는 字素 彡, 月(肉), 血에 담긴 의미는 그림-14, 그림-15의 자형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적어도 漢代 馬王堆 帛書의 쓰기 영역 안에서는 月(肉)과 永의 字素 결합과 彡, 月(肉), 血의 字素 결합이 동일한 의미 영역(meaning boundary)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이미 두 자형은 脈이라는 공통의 의미를 기본 字意로 삼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기표가 하나의 기의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을 字意의 각도에서 정리해 보면, 月(肉)과 永의 字素와 彡, 月(肉), 血의 字素가 동일 맥락 속에 있다는 풀이로 귀결된다. 이렇게 보면, 결국 永의 字素와 彡와 血의 字素가 동일한 의미 영역(meaning boundary)을 공유하고 있다는 표현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永에는, 永과 彡, 血이 가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하고 이것이 성립되기에, 彡, 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이해가 가능해진다. 한편, 갑골문과 金文의 永 자형을 분석하면서 이미 살핀 바 있지만 永 자형 안에 액체를 의미하는 字素가 들어있기에 馬王堆 帛書의 脈 관련 자형에 물 彡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血 字素가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갑골문, 金文에 생략된 형태로 존재하던 물 水의 字素와 馬王堆 帛書의 脈 관련 자형에 등장한 물 彡가 사실은 피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니까 갑골문이나 金文에 존재하는 行, 水, 人의 字素는 사람의 몸에 있는 액체의 움직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액체가 사실은 피였음이 일련의 관련 자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분석은 그림-7부터 그림-12까지의 갑골문 속에 존재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又, 卩, 止의 字素들이 사람 人으로만 보기에 어색했던 자형과 결합되고 있던 의문점을 풀어준다.

갑골문의 考釋에 있어서, 갑골문 자형들이 부호화된 단계의 문자이기는 해도, 도

화성은 각각의 문자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림-7부터 그림-12의 자형에서 보듯이 두 손으로 인체의 특정 부위를 양쪽으로 벌리고 있는 듯한 모습에는 분명 특별한 造字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람 人은 몸의 측면과 팔의 상형문이므로 몸과 팔 사이를 벌린다는 해석은 어색하다. 여기서는 무언가 신체의 어떤 부분을 헤집거나 벌리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그림-12는 손이 액체 부분에 직접 맞닿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갑골문부터 馬王堆 帛書까지의 관련 자형을 살펴 본 결과를 근거로 보면, 갑골문 永 자형이 보여주는 도화성은 인체와 관련한 액체를 다루거나 헤집거나 벌리는 동작이라는 이해가 어색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피였음 확인한 상태이기에 손으로 다루는 것이 혈액, 또는 혈관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行, 水, 人의 字素는 헤엄칠 泳의 初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체를 따라 움직이는 피의 흐름을 살피는 과정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永 자형을 피의 흐름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태도는 앞서 갑골문 텍스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永이 연속성, 영원성의 의미를 갖게 되는 문화적 당위성에도 들어맞는다. 商 왕실에 있어서 직계 혈족인가 비직계인가의 문제는 商代 역사의 핵심 행위였던 조상신을 위한 제사 五種祭祀 제도 설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sup>13)</sup> 또 商代 당시 商 왕실과 주변 종족들이 엄밀한 혈족 관계에 의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회적 현실<sup>14)</sup> 역시 당시 혈연과 혈연에 대한 문화적 활용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당시 사회에서 혈액에 대한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이해가 존재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갑골문에는 血 자형이 존재하고 있어 당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와 관련한 나름의 지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관찰이 가능한 임신, 두통, 분만, 신체 각 부위의 진단 관련 갑골문들을 고려해 볼 때, 또 이들 자형 등에서 혈액을 표현하는 점과 선들의 존재로 볼 때, 피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있었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 동양 문화 속에서 血을 매개로 한 어휘인 血族,

13) 김경일, 〈유교문화의 원형 탐색을 위한 ‘出組’ ‘五種祭祀’ 관련 갑골문 연구〉, 중어중문학 제37집, 2005, 12, 1-22쪽 참조.

14) 楊升南, 〈卜辭中所見諸侯對商王室的親屬關係〉《甲骨文與殷商史》, 1981, 169쪽.



血緣 등이 문화적 의미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商 왕실의 피에 대한 이해는 분명 일정한 수준이기는 해도 나름대로의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물론 차원 높은 이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히 永이 商代에 이미 안전, 연속성, 영원성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를 생명, 또는 안전과 연결된 이미지로 파악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특히 周代에는 永이 조상들에 대한 혈족 제사 전문 도구인 청동기 銘文, 그림-32에서 보듯이 ‘子子孫孫永保用’의 중요한 문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永이 혈족, 또는 혈연, 생명의 연속성과 같은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商 왕실이 血 자형을 사용하지 않고 行, 水, 人의 字素를 지닌 永의 자형을 사용하고 있는 문자사용 현상은 商 왕실이 ‘영원성’을 상징하기 위한 대상으로 피 자체가 아니라 피의 흐름, 즉 血流의 이미지를 상징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2  
‘子子孫孫  
孫永保  
用’

이러한 이해는 永이라는 기표가 피의 흐름, 즉 혈류를 주요 기의로 삼고 있다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문자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자료를 통해서 객관성이 확보된다. 뿐만 아니라 그림-28에 보이는 춘추 중기 또는 후기의 ‘王子午鼎’의 永 자형은 商 왕실이 ‘영원성’을 상징하기 위해 行, 水, 人의 字素를 동원했던 이유가, 드러내

려 했던 기의가 피 자체가 아닌 피의 흐름, 즉 혈류의 이미지였음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전하고 있다.



그림 28

永

‘王子午鼎

(춘추 중기

또는 후기)

그림-28의 永 자형은 인체를 두 개의 선으로 윤곽을 그린 뒤 그 안에 다시 선을 넣은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독특한 자형은 바로 인체 안에 흐르는 피, 즉 血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갑골문, 金文, 馬王堆 帛書의 永 자형 속에서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는 行, 水, 人의 字素의 이미지적 표현으로 청동기 銘文이 갑골문의 생략된 필획이 감춘 도화성을 드러내곤 하는 문자학의 일반적인 관찰과도 정확하게 연결된다. 앞서도 소개했지만, 「중국문자의 기원은 도화」라는 고문자학자 唐蘭의 견해<sup>15)</sup> 이후 갑골문 등의 고대 문자를 단순 부호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은 학문적 기반을 획득하였고 고대 자형들의 考釋이 깊이를 더 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永과 관련한 자형들의 해석 역시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특히 갑골문과 달리 周代 청동기 문자들 중에는 정치, 종교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 거의 문양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형들이 존재함이 확인되고 있다.<sup>16)</sup> 더구나 永은 전체 西周 金文에 사용된 총 2837자 중에서 사용빈도수가 1000회가 넘는 글자의 하나로 전체 문자사용 비율 중 최고인 27.3%에 달하는 문자이다.<sup>17)</sup> 永은 물론 춘추 전국 시대에서도, 앞서 소개한 바 있는 「子子孫孫永保用」의 어휘를 통해 더 활발히 재현되고 있었기에 춘

15) 《古文字學導論》，臺灣，洪氏出版社，1978，108쪽.

16) 容庚，《殷周青銅器通論》，臺灣，大通書局，출판년도 미상，99쪽.

17) 張再興，《西周金文文字系統論》，上海，華東師大，2004，7-10쪽.

추 시대의 金文에서 도화성이 짙은 그림-28의 永 자형을 만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고대문화의 일반적인 발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피의 흐름, 즉 혈류를 생명의 흐름, 생명의 연속성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문화심리는 구체적 사물을 들어 추상적 의미를 구현해 내는 神話素(mythologem) 표현과 동일한 흐름 속에 있다. 즉, 정신분석학자이며 신화학자였던 융이 설명한대로 神話素(mythologem)로서의 원형(archetype)이 문화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신화 영역에서 다시 탄생되어가는 '일종의 투사과정(a sort of projection)'<sup>18)</sup>이 商代의 永 자형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원성'의 이미지를 문자로 재현해 내려는 신화적 심리가 당시 商代 구성원들, 혹은 그 이전 시대 구성원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즉, '피의 지속적인 흐름'을 생명 또는 생명의 연속성으로 이해한 뒤, 行, 水, 人의 字素 조합을 통해 '생명의 지속적인 움직임'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 이미지가 바로 永인 것이다. 그리고 商代 이후 永이라는 자형을 '영원성(Eternity)'의 확보라는 추상적 행위의 구체적 표현으로 삼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說文解字》에 보이는 脈 자형을 살펴보자. 《說文解字》에 보이는 脈의 자형은 脈이다. 즉, 血과 脈의 字素로 되어 있다. 脈은 《說文解字》에서 '反永', 즉 永의 자형을 뒤집어 놓은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는 「水之邪流別也」 즉 '물이 곁으로 갈라져 흐르는 모양'이라고 풀고 있다. 하지만 앞서 永의 고대 자형들을 살펴보았지만 자형의 좌우형은 구별 없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脈의 「水之邪流別也」의 표현은 永의 의미를 좀더 구체화시켜준다 하겠다. 즉, 앞서 살핀 대로 永이 혈액 자체가 아니라 혈관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血流, 그것도 한 줄기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는 이미지임이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결국 《說文解字》가 脈이 「血理分邪, 行體中者」, 즉 '피가 곁을 따라 나뉘어 여러 갈래로 되어, 즉 혈관을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몸 안에 흐르는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永의 자형 안에 내재되어 있는 血流의 이미지에서 비롯되었다 하겠다. 어쨌든 《說文解字》의 脈에 대한 설명으로 脈이 몸 전체에 존재하는 혈관, 또는 혈관을 따라 움직이는 혈액의 흐름을 뜻함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리고 永

18) C. G. Jung, 「On the Nature of the Psyche」,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신화와 역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79쪽에서 재인용.

에는 혈관을 따라 흐르는 血流의 이미지가 분명 존재했음을 후대 문헌인 《說文解字》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說文解字》에는 ‘或’의 자형<sup>19)</sup>으로 고기 肉, 즉 月과 廾로 구성된 형태가 소개되고 있다. 《說文解字》가 전하는 고기 肉, 즉 月이 血과 호환되는 상황은 앞서 漢代 馬王堆 帛書의 그림-14, 그림-15, 그림-16, 그림-17의 자형 설명 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결국 字素 彡, 月(肉), 血에 담긴 의미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 합리적임을 강하게 입증한다. 결국 永의 갑골문에 담긴 行, 人, 水의 字素가 문자의 자형 변화에 따라 때로 彡, 月(肉), 血의 字素로 변하기도 하지만 내면에 담긴 문화적 의미는 동일한 맥락 속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파악된다. 그리고 마침내 《說文解字》에서는 血과 廾의 조합으로까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이를 다시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서로 다른 기표처럼 보이는 기표들이지만 내면에는 언제나 동일한 기의를 내포한 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문자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상형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다.

### Ⅲ. 맺는 말

이상의 분석 과정을 통해 필자는 商代 갑골문 永이 行, 水, 人의 字素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람과 관련 있는 액체의 유동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도 永이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meaning boundary)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문자의 祭儀적 사용을 통해 聖別된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원시사회 속에서 주로 제례를 통해 통치 권위의 내면을 강화하는 이른바 내재적 전체성의 원리(inhabiting principle of the whole)에 들어맞는 점을 밝혀두었다. 이어서 馬王堆 帛書에 등장하는 脈 관련 자형들을 분석하였고, 馬王堆 帛書의 필사 습관에서 肉(月), 月, 目的 字素가 서로 자유롭게 호환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永의 기본 字素인 行, 人, 水의 세 가지 요

19) 《說文解字》에서 이제 자형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전문 표현으로 당시에 존재하던 자형임을 증명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곤 한다.

소는 사라지지 않고 부호화된 상태로 馬王堆 帛書의 자형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漢代 馬王堆 帛書의 쓰기 영역 안에서는 月(肉)과 永의 字素 결합과 彡, 月(肉), 血의 字素 결합이 동일한 의미 영역(meaning boundary)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상세히 증명했다.

馬王堆 帛書의 脈 관련 자형에서 血 字素가 등장하는 이유를 통해 갑골문, 金文에 생략된 형태로 존재하던 물 水의 字素와 馬王堆 帛書의 脈 관련 자형에 등장한 물 彡가 사실은 血, 즉 피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갑골문 永 자형은 인체를 따라 움직이는 피의 흐름을 살피는 과정을 압축해 놓은 것임을 설명했다. 또 商代 당시 永이 이미 안전, 연속성, 영원성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를 생명, 또는 안전과 연결된 이미지로 파악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점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림-28에 보이는 춘추 중기 또는 후기의 ‘王子午鼎’의 永 자형은, 갑골문이 ‘영원성’을 상징하기 위해 行, 水, 人의 字素를 동원했던 이유가 혈류의 이미지였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다.

피의 흐름, 즉 혈류를 생명의 흐름, 생명의 연속성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문화심리는 神話素(mythologem)로서의 원형(archetype)이 문화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신화 영역에서 다시 탄생되어가는 ‘일종의 투사과정(a sort of projection)’이 商代의 永 자형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즉, ‘피의 지속적인 흐름’을 생명 또는 생명의 연속성으로 이해한 뒤, 行, 水, 人의 字素 조합을 통해 ‘생명의 지속적인 움직임’이라는 이미지가 탄생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說文解字》의 脈에 대한 설명을 통해 永에는 혈관을 따라 흐르는 血流의 이미지가 분명 존재했었고 문자 발전 과정 속에서 후대 문헌인 《說文解字》로 전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갑골문 永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이 연구에서 논문의 편폭과 미흡한 역량 때문에 周代 金文에서 보다 많은 증거를 찾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 【參考文獻】

曹錦炎, 沈建華編著, 《甲骨文校釋總集》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6.

- 陳夢家,《殷虛卜辭綜述》,臺灣,大通書局,1971.
- 崔永東,《兩周金文虛詞集釋》,北京,中華書局,1994.
- 戴家祥,《金文大字典》,北京,學林出版社,1995.
- 董作賓,《董作賓先生全集》,臺灣,藝文,民國30年.
- 方述鑫等編,《甲骨金文字典》,成都,巴蜀書社,1993.
- 郭大順·張星德,《東北文化與幽燕文明》,南京,江蘇教育出版社,2005.
- 郭沫若等,《甲骨文合集》,北京,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1982.
- 何琳儀,《戰國文字通論》,北京,中華書局,1989.
- 華東師範大學中國文學研究與應用中心,《金文引得》(三冊),廣西,廣西教育出版社,2002.
- 胡厚宣,《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下》,河北,河北教育出版社,2002.
- 黃天樹,《殷虛王卜辭的分類與斷代》,北京大 博士學位論文,臺灣,文津出版社,1991.
- 荊門市博物館,《郭店楚墓竹簡》,北京,文物出版社,1998.
- 勞思光,《中國哲學史》,香港,香港中文大學,1980,3版.
- 李珍華,周長楫,《漢字古今音表》,北京,中華書局,1993.
- 劉志基等,《金文今譯類檢》,廣西,廣西教育出版社,2003.
- ,《金文資料庫》,廣西,廣西教育出版社,2003.
- 李孝定,《甲骨文字集釋》,臺灣,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1982.
- 李學勤,《清華大學藏戰國竹簡》,上海,中西書局,2010.
- 馬承源,《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2005.
- 屈萬里,《尚書集釋》,臺灣,聯經出版社,民國75.
- 饒宗頤,《甲骨文通檢》總4冊,香港,中文大學,1989-1995.
- 容庚,《金文編》,北京,中華書局,1994 4次.(簡稱:金).
- 沈培,《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臺灣,文津出版社,1992.
- 孫海波,《甲骨文編》,北京,中華書局,1989.
- 王宇信,《西周甲骨探論》,
- 徐中舒,《甲骨文字典》,四川,四川出版社 1990.
- 姚孝遂·肖丁合著,《小屯南地甲骨考釋》,北京,中華書局,1985.
- 姚孝遂主編,《殷墟甲骨刻辭類纂》,北京,中華書局,1989.
- 姚孝遂主編,《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吉林,吉林大學古籍研究所叢刊之五,1988.
- 楊升南,《商代經濟史》,貴州,貴州人民出版社,1992.
- 楊升南,王宇信,《甲骨學一百年》,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9.
- 于省吾,《甲骨文字詁林》,北京,中華書局,1996.
- 張再興,《西周金文文字系統論》,上海,華東師大,2004.

- 張世超 等, 《金文形義通解》, 北京, 中文出版社, 1996.  
 張玉金, 《甲骨文虛詞詞典》, 北京, 中華書局, 1994.  
 種柏生, 《殷商卜辭地理論叢》, 臺灣, 藝文印書館, 民國78.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小屯南地甲骨》, 北京, 中華書局 1983.  
 周法高, 《金文詁林》, 香港, 香港中文大學, 1974.  
 \_\_\_\_\_, 《金文詁林補》, 臺灣, 中央研究院, 1982.  
 朱漢民, 陳松長 主編, 《嶽麓書院藏秦簡》,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0.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신화와 역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신항식,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 서울, 문학과 경제사, 2003.  
 신현숙, 박인철, 《기호, 텍스트, 그리고 삶》, 서울, 월인, 2006.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동양신화-신의 가면II》, 서울, 까치글방, 1999.  
 \_\_\_\_\_, 이진구 옮김, 《원시신화-신의 가면I》, 서울, 까치글방, 2003.  
 \_\_\_\_\_, 홍윤희 옮김 《신화의 이미지》, 서울, 살림출판사, 2006.  
 질베르 뒤랑, 유평근 옮김,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서울, 살림, 1998.  
 馮友蘭,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 서울, 까치, 1999.  
 쿠르트 휘브너, 이규영 옮김, 《신화의 진실》, 서울, 민음사, 1991.

## 【中文提要】

本文旨在對甲骨文‘永’的考釋提出質疑，并根据漢代馬王堆帛書的‘足臂十一脈灸經’和‘陰陽十一脈灸經’里存在的有關脈‘脉’的字形進行分析而提出新的解釋。基本上，甲骨文‘永’的字形存有‘行’，‘水’，‘人’字素，因此，一向被認為‘泳’的初文。但是，甲骨文‘永’的字形也有‘又’，‘止’的字素，而且其字形像用手觸摸人體的某些部分，并非游泳的動作。根据甲骨文和金文的內容分析，在商代‘永’一直被使用為‘安全’，‘保存’，‘維持’等字意，后來在周代發展成‘永遠’的意義。

‘足臂十一脈灸經’和‘陰陽十一脈灸經’里的‘脉’字形具有‘肉’，‘水’，‘血’和‘永’字素，基本上顯示‘与人体有關的液体的運動’。馬王堆帛書的‘脉’字形所傳的‘与人体有關的液体的運動’的字意就是《說文解字》記載的‘血理分邪，行體中者’的原本內容。這意味着‘永’字的本意就是‘与人体有關的液体的運動’，并非游泳的動作。同時，馬王堆帛書的‘脉’字形里的‘血’字素表示‘永’字形所包含的‘液体’

可能是‘血液’。春秋中期或晚期的‘王子午鼎’的‘永’字形富有圖畫性，表露‘永’就是人體內循環的血液。

總之，甲骨文‘永’的字形存有的‘行’，‘水’，‘人’字素是爲了要表示血液循環在人體內的情況而挑選的。商王室利用血液循環表示‘生命的維持’，‘王室的保存’，‘政治的穩定’等意思，這種概念在周代發展成‘血族政權維持的永遠性’，後來進一步形成爲‘永遠’的概念。

### 【主題語】

永, 脈, 갑골문, 마왕퇴 백서, 생명, 혈류

투고일: 2013. 10. 15 / 심사일: 2013.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3. 11. 10